

젊음과 멋의 조화

조성훈 선생님댁을 찾아서

싸락눈, 우박, 비 등이 뒤섞여 내리던 흐린 날 오후 3시 쯤 기자들은 학교 운동장 담 너머에 사시는 선생님댁을 방문했다. 고무신을 신으신 채 반갑게 맞아 주셨고 마침 호주 팀과의 월드컵 예선 2차전을 보고 계시던 부군님께서도 일어나시며 자리를 권하셨다.

선생님께서 내어 주신 앨범을 뒤적이며 귀여운 윤미의 재롱에 모두들 웃음 꽃을 피웠다. 먼저 어떤 기자가 결혼 경위를 묻자 선생님께서는 사부님(?)을 바라보시며 웃으셨다. 사부님(?)께서도 웃으시며 “약 4·5년 연애 했을까? 저 사람이 내 동생하구 친구요. 그래서 알게 됐죠. 학생 때부터 연애를 했으니까 좀 불량학생(?)이었죠.”(모두 웃음)

“시누이와 어색한 점은 없을까요?” “글쎄, 남들이 보기엔 그럴지 몰라도 서로 이해하고 마음을 알아주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선생님께서는 수줍은 듯이 안경 속의 눈을 깜박이셨다. “그럼 결혼하

게 된 결정적 동기는요?” 선생님께서 사부님 눈치를 한 번 보시고는 “2·3년 교제 하다가 한 열흘 쯤 편지를 안했지. 그때 제주도에 계셨을 때 일거예요. 그런데 사탕이랑 밀감을 보내 왔어요. 그래서 그걸 먹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졸전에 열흘동안 편지 안하신 걸 참 오래동안 안하신 것 같이 말씀하셨는데 그 전에는 어느 정도로 자주하셨나요?” 이 물음에 윤미를 안으시며, “그 전에는 자주 했었어요.” “사부님께서는 선생님의 어떤 점이 마음에 드셨어요?” “글쎄요, 저 사람이 웃기도 울기도 잘 하거든요. 그리고 나 보다는 명랑한 편이죠. 아마 그런 순진성에 매력이 있었다고 할까요. 아무튼 다 좋았어요.” 마침 선생님께서 커피와 과자를 내오셨다. “선생님은 어떤 요리를 제일 잘 하세요?” 사부님을 쳐다 보시더니 “배를 타시는 이유때문인지는 몰라도 육류보다는 생선을 좋아 하시거든, 그래서 조기찌개는 자신있다구요.” “두 분의 취미

는 어떠신가요?” 사부님께서 “전, 등산을 좋아하죠. 또 요즘 관심거리인 축구에도 관심이 있어요.” 선생님께서도 “저도 등산을 좋아해요. 저번에도 함께 산엘 갔었는데 덕분에 윤미도 속리산이랑 내장산 구경을 했죠.” “두 분께서는 말하자면 맛벌이 부부이잖아요? 어려운 점도 있을 거구요. 또 어느 분이 집에 먼저 들어오세요?” “네, 역시 불편한 점이 많죠. 하지만 집안 일이나 윤미는 어머님께서 모두 돌봐주시니까 별 어려움은 없어요. 물론 제가 주부니까 항상 일찍 들어오죠.” “선생님께서 인성여고 재학 시절과 지금과는 많이 달라졌죠?” “그렇죠. 제가 고등학교 졸업한 지 여러 해 지났으니까 학교 규모도 커졌고, 학생 수도 많아졌어요. 또 선생님도 여러 분이 오고 가셨구. 아무튼 여러 모로 많이 변했어요.” 이때까지 잠자코 계시던 사부님께서 한 말씀 하신다. “저 사람이 학

교에서 정말 필요한 지 모르겠어요. 윤미 엄마 별명이 알고 싶은데...”라고 사부님께서 묻자 기자 중의 한 학생이 대답했다. “예, 선생님은 매우 활동적이구요, 굉장한 열성파로 통하죠. 별명은 시험 봐서 통과하지 못하면 자꾸 재시험을 보시기 때문에 ‘재시’예요.”(모두 웃음) “인성 여고 여선생님 중에선 인기 있는 분이세요.” “끝으로 인성학교 학생들 아니 후배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해주세요.” “글쎄 가끔 들어보면 예의 없는 학생들이라는 소리를 들을 때가 있어요. 물론 몇몇 학생들 때문이겠지만, 아무튼 자기의 위치를 잘 알고 실천하고, 성실하고 예의바른 학생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들은 윤미의 재롱을 보고 있다가 4시 30분을 알리는 패종 소리를 듣고서 아빠손을 잡은 윤미의 인사를 뒤로 하고 아쉬운 발길을 옮겼다.

